

‘약한영웅’ 배우 최현욱 “여성팬 의식하며 연기하진 않았죠”

웨이브 드라마 ‘약한영웅’ 안수호, 가장 만화적인 캐릭터 격투기 선수 출신으로 싸움도 잘하고 의리 있는 역 열연

웨이브 드라마 ‘약한영웅 Class 1’에서 ‘안수호’(최현욱)는 가장 만화적인 캐릭터다. 격투기 선수 출신으로 싸움도 잘하고 의리도 있다. 매일 아르바이트 해 학교에선 잠만 자기 일수지만, ‘연시은’(박지훈)이 괴롭힘을 당하면 어디선가 나타나 도와준다. 학원물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히어로 캐릭터지만, 최현욱은 뻔하지 않게 소화했다. “남자가 봐도 멋있다”며 “실제 성격을 녹인 부분이 많다”고 귀띔했다. 특히 박지훈(23)은 “최현욱은 극본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대사 하나로 많은 걸 표현한다. 배운 점이 많다”고 치켜세웠다.

“극본대로 하기 보다, 감독님과 소통하면서 연기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에드립이 나왔다. 극본을 봤을 때 수호 캐릭터의 매력적인 부분을 좀 더 살릴 필요가 있었다. 나름 준비를 많이 했고, 현장에서 합을 맞추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사도 있었다. 수호를 연기하면서 한층 성숙해진 것 같고 배운 부분이 많다. 유쾌하고 활발한 성격, 친구를 대할 때 ‘으쌔으쌔’하는 부분 등이 답아서 잘 녹아 든 것 같다.”

이 드라마는 상위 1% 모범생 시은이 처음으로 친구가 된 수호, ‘오범석’(홍경)과 함께 폭력에 맞서는 이야기다. ‘4만번의 구타’(2017)로 미장센 단편영화제 최우수작품상을 받은 유수민 감독이 극본·연출을 맡았으며, 넷플릭스 드라마 ‘D.P.’(2021) 한준희 감독이 크리에이터로 참여했다. 18일 총 8회를 공개했으며, 올해 웨이브 유료가입자수 1

위를 차지했다. 한 감독은 세 배우 조화가 뛰어나다고 평했는데,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았을까. “형들을 정말 좋아한다. 기싸움은 전혀 신경쓰지 않았고, 작품이 잘 나오길 바랐다”고 귀띔했다.

“다른 배우들이 나오는 장면도 마음이 아파서 다시 돌려봤다. 촬영하면서 배운 점도 많았지만, 8부작 공개하고 모니터로 보면서 배운 점도 많았다”며 “단순히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과 친구를 지키고 싶어서 나오는 마음이 처절하지 않았느냐. 현실적인 상황이 더해진 액션을 보고 ‘다들 진짜 고생했구나’ 싶었다. 서로 ‘정말 최고’라며 덕담을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현욱은 이 작품을 통해 가장 많은 팬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다. 수호는 여성들이 반할만한 요소를 모두 갖췄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여성 팬들의 마음을 녹여 버릴거야”라고 염두에 두면서 연기하지는 않았다. 캐릭터에 충실했다”고 돌아봤다. “감독님이 ‘습득력이 좋고 행간을 잘 읽는다’고 했다”면서 “극본에 나와 있지 않은 사이사이를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서 연기해 칭찬을 받곤 했다”고 덧붙였다.

처음으로 액션에 도전해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 “하면 할수록 재미있다”고 했다. 촬영 전 격투기 출신 선수와 스파링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체력 소모가 많지만 계속 배우고 싶더라. 경험을 쌓고 싶어서 스파링을 했는데, 덕분에 감정을 알게 됐고 눈빛도

달라졌다”고 전했다. “액션스쿨에서 ‘액션은 서로 호흡이 중요한 춤과 같다’고 배웠다”며 “막연히 액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노력이 많이 필요했다”고 했다.

“약한영웅은 끝까지 보면 두 세 번은 보게 될 거다. 나도 그랬다. 좋아하는 장면이 많은데, 수호가 첫 등장하는 신이 가장 인상 깊었다. 수호와 시은이 교차 편집 돼 각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의 분위기와 음악 등도 좋았다. 시은은 공부벌레, 수호는 알바를 열심히 하고 학교에 와 아침 일찍 만나지 않는다. 수호에게 시은은 소중한 친구이자 약해지는 존재 같다. 그래서 제목도 약한영웅 아니냐. 수호에게 범식은 애증 관계로 아픈 손가락이다.”

최현욱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야구를 하다가 부상으로 그만뒀다. 고2 때 한립연예고에 편입했고, 2019년 웹드라마 ‘리얼:타임:러브’로 데뷔했다. 드라마 ‘라켓소년단’(2021)과 ‘스물다섯 스물하나’(2022) 주연으로 연이어 발탁 돼 주목 받았다. “야구를 그만두고 영화를 많이 봤다. 감수성이 풍부해 눈물을 많이 흘렸다. 잠깐의 호기심을 가졌는데, 연기학원에서 배우다 보니 재미있었다”며 “(오디션에 가면) 종종 ‘능글능글하다’는 얘기를 들곤 했다. 나도 떨리고 부끄러운 게 많지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편”이라고 했다.

데뷔 후 3년 여 만에 주연으로 발돋움해 부담감도 클 터다. “빠른 시간 안에 올라온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다”며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감사하다. 내년엔 더 열심히 하고 잘 해내보겠다”고 각오했다. 톨모델로 소속사 선배 김수현(34)을 짝을 줄 알았지만,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래도 “선배가 칭찬하고 좋은 말도 많이 해주



다”며 “커피차도 보내줘서 ‘잘 먹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아직 못해본 역이 많은데, 매번 달라 보이고 싶다. 한 번도 내가 연기를 잘 한다거나 타고났다고 생각해보는 적은 없다. 항상 부족해 나를 의심하고, ‘매 순간 잘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전작보다 자연스럽게 연기하려고 노력했고, 그만큼 수호에게 애착이 많이 갔다. 올해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간 것 같다. 스물다섯 스물하나 찍고 약한영웅 공개하고, 정신없이 살았다. 10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냐고? 나 자신한테 150점을 주고 싶다.”

‘법정공방’ 김현중 “영화서 보던 일...‘금고보관’ 휴대폰 증거돼”

‘MBN 뜨겁게 안녕’ 방송

그들 ‘SS501’ 출신 김현중(36)이 법적 공방 사건에 대해 밝혔다.

28일 오후 10시 40분 방송하는 ‘뜨거운 안녕’에서는 김현중이 공개하지 않았던 인생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김현중은 ‘하이바이 박스’에 압수 봉인지에 담긴 휴대폰을 넣어 ‘안녕지기’ 유진·은지원·황제성에게 보낸다. 휴대전화 전체를 묻는 질문에 그는 “나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지 않느냐”며 5년 동안 이어진 법적 공방을 언급한다.

김현중은 2014년 8월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피소됐다. 여자친구였던 A씨를 2개월 동안 수차례 구타했다는 혐의였다. 이후 전자분쟁 등 사생활 문제로 연이은 입방아에 올랐다.

2016년 8월 재판부는 “원고인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현중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금고에 휴대폰을 넣어뒀다. 영화에서만 보던 상황이었는데, 휴대폰이 증거가 돼서 나를 보호해줬다”고 전한다. 그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졌다”며 미소를 보인다.

김현중은 “내가 벼랑 끝까지 궁지에 몰리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나를 갈고 닦았을까 싶다. 후회와 자책마저 버렸다”며 좁아진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다.

김현중은 사건 이후 2018년 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로 오랜만에 복귀했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올해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해 2남(장남은



전 여자친구 소생)을 두고 있다.

트레저, 홋카이도서 日 첫 아레나 투어

총 3회차 공연, 1만 8000명 관객 만나

그들 트레저가 홋카이도를 뜨겁게 달구며 데뷔 첫 일본 아레나 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28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레저는 지난 26일, 27일 양일간 홋카이도 종합체육센터 홋카이키타에에서 ‘트레저 재팬 아레나 투어 2022-23-헬로우~(TREASURE JAPAN ARENA TOUR 2022-23-HELLO~)’를 개최, 총 3회차에 걸쳐 1만 8000명의 관객들과 만났다.

데뷔 2년 만에 첫 일본 투어를 나선 트레저는 데뷔곡 ‘보이(BOY)’를 비롯해 새 앨범 ‘더 세컨드 스텝 : 캡처 투(THE SECOND STEP : CHAPTER TWO)’ 타이틀곡 ‘헬로우(HELLO)’ 등 주요 히트곡의 일본어 버전을 포함한 24곡의 세트리스트로 150분을 꽉 채웠다. 또 한 편의 영화 같은 VCR 영상으로 보는 재미를 높였고, 유창한 일본어로 소통하는 것은 물론 분무대와 돌출 무대 등 공연장 곳곳을 누비며 관객들과 가까이 호흡했다.

공연 말미 2023년 1월 28일~29일 교세라돔 오사카 추가 공연 소식이 공개됐다. 일본 오사카 출신 멤버 야사히는 “첫 돌 공연이 오사카 교세라돔으로 결정되어 매우 기쁘고 감회가



깊다. 어렸을 때 박병 선배님들의 공연을 보러 왔던 동경의 무대인만큼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트레저는 홋카이도에 이어 후쿠이 12월 3일, 나고야 12월 6일~7일, 후쿠오카 12월 17일~18일, 효고 12월 21일~22일·24일~25일, 도쿄 12월 31일, 사이타마 1월 3일~4일, 오사카 1월 28일~29일 등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오는 30일에는 미니 2집 ‘더 세컨드 스텝 : 캡처 투’ 일본어 음반을 발매해 그 열기를 더 한다.

레드벨벳, 새앨범 선주문 71만장 돌파...자체 최고

미니앨범 ‘더 리브 페스티벌 2022-버스테이’



그들 ‘레드벨벳(Red Velvet)’의 새 미니앨범 ‘더 리브 페스티벌 2022-버스테이’를 기념하며, 자체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 앨범은 레드벨벳이 펼치고 있는 ‘더 리브 페스티벌(The ReVe Festival) 2022’의 두 번째 앨범이다. 타이틀 곡 ‘버스테이’를 비롯해 ‘바이 바이(BYE BYE)’, ‘롤러코스터(On A Ride)’, ‘줌(ZOOM)’, ‘셀러브레이트(Celebrate)’ 등 총 5곡이 실렸다.

특히 ‘버스테이’는 미국 현대음악의 거장으로 통하는 작곡가 조지 거슈윈 ‘랩소디 인 블루(Rhapsody in Blue)’를 샘플링했다. 리드미컬한 드럼과 시원한 신스 사운드에 여우리듬 트럼 리듬 기반의 팝 댄스다. “나와 함께라면 매일이 생일처럼 즐거울 것”이라는 당찬 고백과 좋아하는 상대의 생일로 돌아가 상상하던 모든 소원을 이뤄주며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하는 내용을 노래했다.

‘버스테이’ 뮤직비디오엔 초대받지 못한 파티장을 점령하는 레드벨벳의 쿨하고 발랄한 매력이 담겼다.

또한 레드벨벳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유튜브 및 틱톡 레드벨벳 채널을 통해 카운트다운 라이브를 진행한다. 근황 토크, 신곡 소개, 작업 비하인드, 앨범 언박싱 등 다양한 코너로 글로벌 팬들과 소통한다.



민호·유세운·장도연 MC ‘웹툰싱어’

다양한 포맷의 음악애호가 잇따라 론칭하는 가운데 웹툰까지 가세했다.

티빙이 웹툰 OST 제작 프로젝트 뮤지쇼 ‘웹툰싱어’를 내년 초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웹툰싱어’는 국내 웹툰에 K팝을 결합시켜 웹툰 OST를 만드는 음악 버라이어티 예능물이다.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닌 확장현실(XR)을

이용한 무대까지 선보인다.

예능 ‘고등래퍼’, ‘언프리티랩스타’ 등을 만든 엠넷 제작진이 연출한다.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 샌드박스네트워크가 공동제작사로 참여한다.

MC 라인업도 눈길을 끈다. 그룹 ‘샤이니’ 민호, 개그맨 유세운, 개그우먼 장도연이 함께 호흡한다.